

# 접촉장면에서의 한중일 의뢰행동의 중간언어 대조분석\*

—대화개시부의 상호행위의 분석을 통해서—

김 종 완\*\*

(e-mail : tegamikure@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분석결과                    |
| 2. 선행연구의 개관 | 4.1. 한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실태    |
| 3. 분석자료     | 4.2. 중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실태    |
|             | 4.3. 일본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실태    |
|             | 4.4. 한중일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 대조분석 |
|             | 5. 나오며                     |

키워드 : 接觸場面(contact situation), 依頼行動(request behavior), インターアクション(interaction), 中間言語(Interlanguage), 発話ストラテジ(conversation strategy)

## 1. 들어가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같은 사회나 집단에서 생활하는 일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3국의 문화적 연속성으로 인하여 평소에는 상호간의 이질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거절을 할 때 적지 않은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노무라(2000)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자문화(自文化)의 특성을 인식하고 대화 상대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간의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453)

\*\*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일본어학, 대화분석

병렬시키는 사고동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학습언어의 문화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문화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인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이유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뢰, 거절, 칭찬, 해명, 감사, 불만표현 등 다양한 언어행동이 일본어와 다른 언어(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대조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의뢰행동의 언어적 표현, 폴라이트네스 전략을 사용하는 사회언어학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서로 다른 언어문화에 의해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상황(이하, 접촉장면이라 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마찰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중일 세 언어의 접촉장면의 의뢰행동에서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실태에 대해서 밝히려고 한다.

## 2. 선행연구의 개관

이러한 모어화자(피의뢰자)의 비모어화자(의뢰자)에 대한 언어적 반응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접촉장면에 관한 연구이다. 네우스토프니(ネウストプニー, 1995)에 의하면 모어화자끼리의 [내적장면(모어장면)]과 그 이외의 장면인 접촉장면은 각 장면의 언어적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접촉장면연구의 이론틀(frame work)인 언어관리 이론에서는, 문제의 관리를 규범으로부터의 이탈, 유의, 평가,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Marriott(1991)은 호주사람과 일본 사람의 실제 비즈니스 장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호주 영어모어화자가 영어 접촉장면에서 일본의 규범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영어모어화자는 완전히 일본의 규범을 적용하지는 못하고 중간언어, 중간문화의 현상이 보였다.

Enomoto(1993)에서는 호주 관광가이드가 사용하는 일본어와 행동에 대한 일본어 모어화자의 평가를 통해서, 일본어능력이 낮은 관광가이드의 이탈에 대해서 모어장면(내적장면)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보였다.

가토(加藤好崇, 2002)에서는 일본어 인터뷰 장면에서 일본어 모어화자가 적

용하는 규범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의 문법적 오용에 대해서는 모어규범을 완화시키고, 의미불명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어규범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모어화자가 일으키는 일탈의 종류에 따라서 모어화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n(1992)은 접촉장면에서의 언어적 조정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어 모어화자와 중국어모어화자가 참가하는 일본어 접촉장면과 영어접촉장면을 대조해서, 일본어 모어화자는 자신이 모어화자가 되는 경우와 비모어화자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언어적 조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모어화자인 일본어 접촉장면의 경우, 일본어 비모어화자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야기의 주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책임을 느끼고, 비모어화자의 참가를 격려하는 경향이 보였다. 즉, 접촉장면에 있어서 모어화자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정전략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분석 자료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자료로서는 2008년도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의 2년제 과제인 과제명 [한중일 3국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보편성과 특수성 연구]의 결과자료인 롤플레이팅 음성자료를 사용한다. 한중일 유학생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지도교수에게 미국대학탐방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동의서를 의뢰하는 장면의 롤플레이팅 조사자료이다. 조사대상자는 언어별로 각 30명씩 총 90명의 대화자료를 녹음한 것을 문자화하여 분석자료로 이용한다.

조사장면은 모어장면과 접촉장면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어 의뢰장면의 경우에는 일본인 모어화자(대학생 및 대학원생)와 일본인 지도교수의 일본어 의뢰행동이 모어장면이 되고,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어로 일본인 지도교수에게 의뢰를 하는 장면이 접촉장면이 된다. 조사대상자는 각 언어별 의뢰행동에 30명(모어장면 10명, 두 개의 접촉장면 20명)씩 총 90명이다.

#### <언어행동의 상황설정>

(1)학생은 미국대학탐방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생각한다.

(2)제출서류에는 지원서(탐방계획서), 신원보증을 위한 학과장 교수님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3)학과장님은 30~40대 교수님으로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4)교수님의 동의서에는 학과장님의 개인정보(나이, 수입등)를 기재해야하고 신원 보증인을 수락한다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동의서 기입과 서명, 날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학과장님을 찾아 뵙기로 며칠 전에 약속을 해 둔 상태이나, 구체적인 용건은 말씀 드리지 않았다.

(5)오늘 추천서 부탁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연구실로 찾아 간다.

위와 같은 언어상황을 설정하여, 실제로 지도교수(조사협력자)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의뢰행동을 하는 롤플레이팅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의 상황설정 에 대해서는 인터뷰 조사 10여분 전에 조사자에게 설명하여 조사자가 의뢰행 동시 사용할 스트라테지를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롤플레이팅 인터뷰 조사는 각 롤플레이팅 인터뷰 시간은 10여분 정도에 이른다. 롤플레이팅 인터뷰 조사의 조사 시기와 조사대상은 아래와 같다.

<표1> 롤플레이팅 인터뷰 조사의 조사시기와 조사대상자

국가	조사시기	조사대상자
중국	2009년 4월	중국인 대학생 10명 (CC01~CC10)-남자 3명 / 여자 8명 한국인 유학생 10명 (CK01~CK10)-남자 2명 / 여자 8명 일본인 유학생 10명 (CJ01~CJ10)-남자 5명 / 여자 5명
한국	2009년 5~6월	한국인 대학생 10명 (KK01~KK10)-남자 5명 / 여자 5명 중국인 유학생 10명 (KC01~KC10)-남자 5명 / 여자 5명 일본인 유학생 10명 (KJ01~KJ10)-남자4명 / 여자 6명
일본	2009년 10월	일본인 대학생 10명 (JJ01~JJ10)-남자 6명 / 여자 4명 중국인 유학생 10명 (JC01~JC10)-남자 3명 / 여자 7명 한국인 유학생 10명 (JK01~JK10)-남자 5명 / 여자 5명

## 4. 분석결과

김중완(201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속성 및 부담도를 동일하게 설정한 의뢰행동의 [대화개시부]에 나타나는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상호행위는 한

중일 언어사회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종완(2018)의 한중일 모어장면에서의 상호행위의 양상이 각 언어의 접촉 장면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 4.1. 한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 실태

한국어 접촉장면에 나타나는 의뢰행동의 [대화개시부]의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상호행위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1. 한국어 접촉장면의 전체적인 담화구조

한국어 접촉장면에서의 담화구조는 크게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 ▶ [착석요구] ▶ [의뢰개시], [문안인사] ▶ [확인] ▶ [의뢰개시] ▶ [자기소개요구] ▶ [자기소개] ▶ [의뢰개시],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요구] ▶ [자기소개] ▶ [방문목적확인] ▶ [의뢰개시]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안인사]이후에 지도교수의 [확인]발화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의뢰자가 [자기소개]를 하거나 바로 [의뢰개시]로 이어지는 담화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 ▶ [의뢰개시]의 발화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문안인사] ▶ [방문인사] ▶ [확인] ▶ [자기소개요구] ▶ [방문목적확인] ▶ [의뢰개시]의 발화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 예문1 KC03

교수	네. 아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이었나?	<b>확인</b>
학생	네	
교수	아!	
학생	교수님. 저요..	
교수	응	
학생	그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 ○○○인테요	<b>자기소개</b>
교수	응	
학생	이번에 우리학교 무슨 뭐 탐방하는 거, 미국 무슨 대학	<b>의뢰개시</b>

예문2 KJ08

교수	네	
학생	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수	아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이구나	확인
학생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	저기 몇 학년이었지?	자기소개요구
학생	저 2학년이요	
교수	이름이 뭐였더라?	자기소개요구
학생	이름이 저 ○○○라고 합니다.	
교수	무슨 일일까? 일단 좀 앉지	방문목적확인
		착석요구
학생	아.예.예.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게 하나 있	의뢰개시
	어가지고요	

4.1.2. 지도교수의 [확인]발화의 사용실태

한국어 접촉장면의 담화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도교수의 [확인]발화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이구나]라는 지도교수의 [확인]발화는 중국어 접촉장면에서 중국인 지도교수의 발화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어 접촉장면에 나타나는 지도교수의 [확인]발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는 의뢰자인 학생의 [인사]발화 이후에 그 반응으로서 [확인]발화를 하는 경우이다.

예문3 KC05

교수	네. 음	
학생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수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인가?	확인
학생	아, 네 저는 그 대학원 국어학과 석사 2차 ○○○입니다	자기소개

두 번째는 의뢰자인 학생인 노크를 하고 연구실에 입실을 하면 지도교수가 먼저 [확인] 발화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경우이다.

예문4 KJ05

교수	응, 오늘 오기로 한 학생이구나	<b>확인</b>
학생	네	
교수	응 몇 학년이었지?	<b>자기소개요구</b>
학생	네 저 석사 5학기예요.	<b>자기소개</b>
교수	자, 이름이 뭐였더라?	<b>자기소개요구</b>

이렇게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는 지도교수는 [문안인사] 발화를 하지 않고 [확인]발화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다. 중국어 접촉장면과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지도교수의 [문안인사] 발화가 자주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어 접촉장면에서 의뢰자인 학생의 [문안인사]에 대해서 지도교수인 피의뢰자는 [확인] 발화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응]이라는 발화로 응답을 하고 있지, [문안인사]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 모어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어에서는 [문안인사]는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4.1.3. [착석요구] 발화에서의 상호행위**

본고의 분석자료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자기소개]나 [의뢰개시]를 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도교수는 의뢰자인 학생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는 [착석요구] 발화를 하게 되는데, 김종완(2018)에서 이러한 [착석요구] 발화에 대한 한중일 모어화자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어 접촉장면에서 지도교수의 [착석요구]에 대한 의뢰자의 반응은 [네]나 [네, 알겠습니다]라는 발화가 총 13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도교수의 [착석요구]에 [네, 감사합니다], [네, 실례합니다]라는 반응은 2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김종완(2018)의 일본어 모어장면과 중국어 모어장면에서는 지도교수의 [착석요구]에 의뢰자인 학생은 주로 [감사합니다]라고 발화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이러한 의뢰자의 발화가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언어행동을 학습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언어적인 언어행동인지는 중국어 접촉장면과 일본어 접촉장면에서의 [착석요구] 발화에 나타나는 상호행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1.4. [의뢰개시]발화에서의 상호행위

한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의뢰개시]발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소개]이후에 바로 [의뢰개시]를 하는 경우와 지도교수의 ‘자,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방문목적 확인]발화에 의해서 의뢰자가 [의뢰개시]를 하는 발화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이후 바로 [의뢰개시]를 하는 경우가 7회로 자주 나타났고,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는 지도교수의 [방문목적 확인] 발화 이후에 [의뢰개시]를 하는 경우가 7회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서 [의뢰개시]발화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예문5 KC09

교수	교수: 응. 자 일단 앉지.	착석요구
학생	학생: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좀 교수님께	문안인사
교수	교수: 응	
학생	학생: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습니다.	의뢰개시

##### 예문6 KJ06

교수	자 이름이 뭐였더라?	자기소개요구
학생	○○○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교수	아아, 자, 일단 앉을까?	착석요구
학생	네	
교수	무슨 일이지?	방문목적확인
학생	네 이번에 그 A항공사...	의뢰개시

한중일 모어장면에서는 지도교수에게 동의서와 추천서를 요구하는 의뢰내용의 부담도 때문에, [의뢰개시]발화 앞에 [마에오키(前置き)]발화를 하는 발화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한국어 모어장면에서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와 같은 마에오키(前置き)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일본어와 중국어 모어장면에서는 사죄표현을 사용한 [마에오키(前置き)]가 자주 사용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는 [의뢰개시]발화 앞에 이러한 [마에오키(前置き)]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바로 의뢰내용을 이야기하는 발화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는 자신들의 모어장면과도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모어장면과도 다른 중간언어적인 발화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4.2. 중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 실태

중국어 접촉장면에 나타나는 의뢰행동의 [대화개시부]의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상호행위의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1. 중국어 접촉장면의 전체적인 담화구조

중국어 접촉장면에서의 담화구조는 주로 [지도교수의 인사] ▶ [인사] ▶ [확인] ▶ [착석요구] ▶ [자기소개] ▶ [의뢰개시], [인사] ▶ [확인] ▶ [착석요구] ▶ [의뢰개시] ▶ [자기소개요구] ▶ [자기소개] ▶ [방문목적확인] ▶ [의뢰개시]의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두 패턴의 가장 큰 차이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노크하고 들어갈 때, 지도교수가 ‘請進(들어와)’라고 발화를 한 후에 연구실에 들어 온 의뢰자가 바로 ‘你好(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지 않자, 지도교수가 ‘你好(안녕)’이나 ‘오늘 온 학생이구나’라는 [확인]발화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경우와, 지도교수의 ‘請進(들어와)’라는 발화 이후에 의뢰자가 연구실로 들어가면서 바로 ‘你好(안녕하세요)’이라고 [문안인사]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예문7 CJ01

교수	啊，請進，請進。啊，你好！ 아,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 안녕!	문안인사
학생	你好 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수	你就是上次和我約好的那個學生吧 학생은 저번에 나와 약속한 그 학생이구나	확인
학생	對對對對，我叫○○○，啊，是這樣……我…… 네네네네, 저는 ○○○입니다. 아, 이것입니다...저는...	자기소개 의뢰개시

#### 예문8 CK04

교사	請進！請進。 들어오세요！들어와.	
학생	哦，你好。 아,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사	哦，你好。 응, 안녕?	문안인사
학생	我是昨天…… 저는 어제...	의뢰개시
교사	好，你叫什麼名字？ 응, 이름이 어떻게 되지?	자기소개요구

또한, 지도교수의 의해 [자기소개 요구]가 이루어진 발화는 지도교수의 의한 [방문목적 확인] 발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자기소개 요구]는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지도교수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착석요구] ▶ [자기소개요구] ▶ [방문목적 확인]의 발화를 연달아 하는 경우이다.

예문9 CK10

학생	老師好。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수	啊，你好，請進。你就是上次跟我約好的那个同學吧？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 학생이 지난번에 나와 약속한 그 학생이지?	문안인사 확인
학생	啊，是。 아, 네.	
교수	好，請坐。 좋아, 앉아.	착석요구
학생	打扰您了。 폐를 끼칩니다.	
교수	沒關係。你叫什么名字？ 괜찮아. 이름이 뭐지?	자기소개요구
학생	啊，我叫○○○，我是那个4年級的同學 아, 저는 ○○○입니다. 저는 그 4학년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교수	哦，4年級？ 아, 4학년이야?	
학생	嗯。 네.	
교수	好的。有什么是嗎今天。 좋아 .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방문목적확인

두 번째는 의뢰자가 [문안인사]이후에 바로 [의뢰개시]발화를 시작하는 경우에 지도교수는 의뢰자의 발화를 중도에서 끊으면서 자기소개를 요구하는 발화를 하는 경우이다.

예문10 CK04

교사	請進！請進。 들어오세요！들어와.	
학생	哦，你好。 아,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사	哦，你好。 응, 안녕?	문안인사
학생	我是昨天…… 저는 어제...	의뢰개시
교사	好，你叫什么名字？ 응, 이름이 어떻게 되지?	자기소개요구

4.2.2. [착석요구] 발화에서의 상호행위

중국어 접촉장면에서 피의뢰자인 지도교수의 [착석요구] 발화에, 의뢰자인 유학생의 반응은,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의 반응이 5회, [안녕하세요]라고 [문안인사]를 하는 경우가 3회 나타났고, 그러한 반응 없이 바로 [자기소개]나 [의뢰발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9회 나타났다. 한국어 접촉장면의 경우 [착석요구]를 인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네]나 [네 알겠습니다]라는 발화가 많은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문11 CK03

교수	老師：啊，你坐下來說吧。 아, 앉아서 말해 봐.	착석요구
학생	學生：老師我是中文系的，4年級的○○○。 교수님 저는 중문과, 4학년 ○○○입니다.	자기소개

또한 ‘請坐吧(자리에 앉지)’라는 [착석요구]발화에 ‘您好(안녕하세요)’라는 [문안인사]를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도교수의 [착석요구]발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의뢰행동이 시작된다고 인식하여서 담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12 CJ08

교수	嗯，請坐吧。 음, 앉아요.	착석요구
학생	您好。 안녕하세요?	문안인사
교수	你好。 안녕?	문안인사

## 4.2.3. [의뢰개시]발화에서의 상호행위

중국어 접촉장면에서의 [의뢰개시]발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첫 번째는 의뢰자인 유학생이 [자기소개]발화를 한 후에 바로 [의뢰개시]발화를 하는 경우가 9회, 지도교수가 [방문목적 확인] 발화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의뢰개시]를 하는 경우 11회 나타났다.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는 학습자의 모어에 의해서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한 가지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모어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 예문13 CJ07

교수	請坐。 앉아.	착석요구
학생	老師，我叫○○○。 교수님, 저는 ○○○입니다.	자기소개
교수	哦。 아.	
학생	我這次跟您約時間，就是爲了……嗯……就是……我想 參加一个活動。(후략) 제가 이번에 교수님과 시간 약속을 잡은 게 바로... 어...바로...제가 한 활동에 참가하고 싶어서입니다.	의뢰개시

## 예문14 CK08

교수	几年級的學生？ 몇 학년 학생이지?	자기소개 요구
학생	4年級的學生。 4 학년 학생입니다.	자기소개
교수	這次來有什么事嗎？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나? 我想去美國任意大學，所以那个經……給老師同意書。	방문목적 확인
학생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동의서를 드립니다.	의뢰개시

이러한 [의뢰개시]발화는 중국어 모어장면에서는 [마에오키(前置き)]발화가 자주 나타났는데 접촉장면의 담화자료에서는 이러한 [마에오키(前置き)]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의뢰내용을 이야기하는 [의뢰개시]로 이어지는 발화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도 [의뢰개시]발화에서 [마에오키(前置き)]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 4.3. 일본어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 실태

일본어 접촉장면에 나타나는 의뢰행동의 [대화개시부]의 의뢰자와 피의뢰자의 상호행위의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3.1. 일본어 접촉장면의 전체적인 담화구조

일본어 접촉장면에서의 담화구조는 주로 [방문인사]or[문안인사] ▶ [자기소개] ▶ [착석요구] ▶ [마에오키] ▶ [의뢰개시]와 [방문인사]or[문안인사] ▶ [자기소개] ▶ [착석요구] ▶ [방문목적확인] ▶ [마에오키] ▶ [의뢰개시]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접촉장면과 중국어 접촉장면과 비교해서 [방문인사]or[문안인사] ▶ [자기소개]로 이루어지는 패턴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김종완(2018)의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의뢰자가 연구실을 방문하면서 [방문인사] ▶ [문안인사] ▶ [자기소개]로 이어지는 발화패턴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방문인사]와 [문안인사]가 같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이 인사행동 가운데 한 가지만 취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문15 JK04

교수	はい。	
학생	しつれいします。えと、比較文學、比較文化のドクター	<b>방문인사</b>
	1年生の〇〇と申します。	<b>자기소개</b>
교수	あ、こんにちは。	<b>문안인사</b>
학생	こんにちは。	<b>문안인사</b>

위의 예문15을 살펴보면, 의뢰자는 연구실로 들어가면서 ‘しつれいします’라고 [방문인사]를 하고 바로 [자기소개]로 이어지고 있다. 지도교수는 그 뒤에 이어질 ‘こんにちは’라는 [문안인사]가 없자, 지도교수가 스스로 ‘こんにちは’라고 인사를 하면서 언어행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자 의뢰자인 한국인 유학생은 비로소 자신이 ‘こんにちは’라는 [문안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문안인사]를 하면서 발화를 이어가고 있다. 분석자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しつれいします’라는 [방문인사] 없이 바로 ‘こんにちは’라고 [문안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발화도 나타났는데, 이때에는 ‘しつれいします’라는 조정행위를 할 수 없기에 바로 [자기소개]로 이어진다.

### 4.3.2. [착석요구]발화에서의 상호행위

다음은 지도교수가 의뢰자인 유학생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착석요구] 발화와 그에 대한 언어행동이다. 김종완(2018)의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지도교수가 의뢰자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座って/ 座ってくれる?/ 座ってください/ 座ってもらえますか/ おかけください’ 와 같이 다양한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접촉장면에서의 지도교수는 모어장면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 ‘すわってください’와 ‘おすわりください’라는 요구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접촉장면에서 피의뢰자인 지도교수의 언어표현이 단순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Fan(1992)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의뢰자의 언어적 조정이 모어장면과 접촉장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예문16 JC03

교수	座ってください。	<b>착석요구</b>
학생	はい、すいません。失礼致します。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일본어 모어화자 의뢰자들은 대부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나 ‘すみません’과 같이 그러한 요구를 의뢰자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다는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한국어 모어장면에서는 ‘일단 앉지’라는 언어표현을 요구표현으로 받아들여서 ‘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중국어 모어장면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나 ‘はい、すみません’라는 발화가 12회 나타났다. 일본인 모어화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러한 감사표현 앞에 ‘はい’라는 응답표현을 추가하는 형태의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가 자신들의 모어와 목표언어인 일본어의 언어표현이 혼합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4.3.3. [의뢰개시]발화에서의 상호행위

한국어 모어장면과 중국어 모어장면에서도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의뢰개시] 발화 이전에 [마에오키(前置き)]발화를 사용해서 의뢰행동의 부담 정도를 경감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어 접촉장면과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그러한 [마에오키

(前置き)의 발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어 접촉장면의 담화자료에서는 [의뢰개시] 발화 이전에 [마에오키(前置き)] 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12회 나타났다. 한국인 학습자(JK)의 자료에서는 4회, 중국인 학습자(JC)에서는 8회 나타나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의뢰개시]발화에서 [마에오키(前置き)]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문17 JK07

교수	あ、〇〇〇君今日何ですか？	방문목적확인
학생	えと、実はですね、えと、急でありながら本当に 申し訳ありませんけれど、	마에오키
교수	うん。	
교수	えと、アメリカンエアラインという会社のほう で、アメリカ大学訪問プログラムという、(후략)	의뢰개시

한국어 접촉장면과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학습자들(KC, KJ, CK, CJ)이 화제 전환이나 사죄나 감사를 나타내는 [마에오키(前置き)]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의뢰개시]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데 비해서,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화제 전환과 사죄, 감사를 나타내는 [마에오키(前置き)]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일본어 의뢰행동에서 사죄나 감사를 나타내는 [마에오키(前置き)]표현이 중요해서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4.4. 한중일 접촉장면에서 중간언어 대조분석

지금까지 한중일 접촉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호행위의 특징을 의뢰행동의 [대화개시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일 접촉장면에서의 전체적인 담화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 ▶ [의뢰개시]의 형태와 두 번째는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요구] ▶ [자기소개] ▶ [방문목적확인] ▶ [의뢰개시]의 형태였다.

한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접촉장면 분석자료에서는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요구] ▶ [자기소개] ▶ [방문목적확인] ▶ [의뢰개시]의 발화형태를 자주 나타냈고, 중국인 학습자는 [문안인사] ▶ [확인] ▶ [자기소개] ▶ [의뢰개

시]의 담화구조가 자주 나타났다.

이것은 접촉장면에서 피의뢰자(지도교수)는 주로 [방문목적확인]발화를 통해서 의뢰담화를 이끌어 가려는 발화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접촉장면과 일본어 접촉장면 모두 그러한 피의뢰자(지도교수)의 발화전략이 나오기 전에 [의뢰개시] 발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장면에서의 상호행위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입실시의 [문안인사]와 [방문인사]의 사용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입실을 할 때, [방문인사] ▶ [문안인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었는데,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이 두 개의 인사가운데 하나만을 취사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피의뢰자(지도교수)는 의뢰자의 [방문인사]이후에 [문안인사]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문안인사]발화를 함으로써 의뢰자가 [문안인사]발화를 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피의뢰자(지도교수)가 먼저 [문안인사] 발화를 함으로써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보였다.

그에 비해 한국어 접촉장면에서의 피의뢰자(지도교수)는 의뢰자인 학생에 대해서 좀처럼 [문안인사]를 사용하지 않고 의뢰자의 [문안인사]에 대해서 ‘응’이라는 발화로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2) [착석요구]발화에서의 상호행위

한국어 접촉장면에서는 한국어 모어장면과 마찬가지로 [착석요구]발화를 행동요구로 인식하여 ‘네’나 ‘네 알겠습니다’로 반응하는 발화가 주로 나타났고,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나 ‘はい、しつれいします’와 같이 감사나 사죄 표현의 발화를 하면서도 일본어 모어장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はい’라는 발화를 추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에 비해,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한중일 모어장면과는 다르게 피의뢰자(지도교수)의 [착석요구]발화에 아무런 대응 발화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소개]나 [의뢰개시]발화로 이행하는 발화가 자주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목표언어의 상호행위와 유사한 발화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목표언어와 모어가 혼합되는 발화형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목표언어와도



모어와도 다른 새로운 발화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의뢰개시]발화에 나타나는 [마에오키(前置き)]의 사용실태

한중일 모어장면에서는 그 형태는 다르지만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운 의뢰의 부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의뢰개시]발화 이전에 [마에오키(前置き)]발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한국어 접촉장면과 중국어 접촉장면에서는 이러한 [마에오키(前置き)]발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의뢰개시]발화를 하는 발화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일본어 접촉장면에서는 한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마에오키(前置き)]사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는 거의 모든 담화자료에서 사죄표현을 사용한 [마에오키(前置き)]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한국인 학습자는 4개의 담화자료에서 사죄표현을 사용한 [마에오키(前置き)] 발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접촉장면과 중국어 접촉장면과는 달리 [마에오키(前置き)]발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학습자의 모어에 따라서 그 사용실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나오며

본고에서는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중일 접촉장면에서의 의뢰행동에 나타나는 중간언어의 실태를 대화개시부를 녹음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도교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짧은 대화 장면에서도 학습자와 모어화자가 취하는 발화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어의 영향이 남아 있는 발화전략, 목표언어의 발화전략, 모어와 목표언어와는 다른 발화전략이 나타나면서 접촉장면에서의 중간언어는 일률적이지 않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접촉장면에서의 한중일 의뢰행동의 중간언어의 전체적인 담화구조를 보고하는데 그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의뢰자와 피의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발화

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세 언어의 학습자들이 형성하는  
중간언어의 실태를 밝히는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종완·김윤희(2011) 「한중일 의뢰행동의 담화구조의 분석 - 대학생 롤플레잉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30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109-130.
- 김종완(2018) 「한중일 의뢰행동에 나타나는 상호행위 양상연구-대화개시부의 분석을 중심으로  
-」 『日本研究』 제48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71-88.
- 加藤好崇(2002) 「日本人母語話者と日本語学習者のインタビュー場面における言語管理の研究」 『東  
海大学紀要』 20号、東海大学、pp.57-69.
- ネウストプニー,J.V.(1995) 「日本語教育と言語管理」 『阪大日本語教育』 7、大阪大学文学部、pp.67-82.
- Enomoto,S.(1993) Native speaker reactions to non-native speaker's deviations from the  
politeness norms in Japanese tour guiding situ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Monash University, Melbourne.
- Fan,S.K.C.(1992) Language management in contact situations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Monash University, Melbourne.
- Marriott, H.E.(1991) Native-speaker behavior in Australian-Japanese business  
commun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g language.92,  
pp.87-117. (DOI: <https://doi.org/10.1515/ijsl.1991.92.87>)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30.
--------------------------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

< 要 旨 >

接触場面での日中韓の依頼行動の中間言語の対照分析  
— 対話開始部のインターアクションの分析から —

金鍾完

本稿は留学生を対象として、日中韓の接触場面での依頼行動に表れる中間言語の実体を明らかにするため、対話開始部を録音したインタビュー資料を分析した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

その結果、指導教官の研究室を訪れ、挨拶をして、自己紹介をする短い会話場面にもかかわらず、学習者と母語話者の発話戦略は日中韓で一様ではないことがわかった。母語の干渉による発話戦略、目標言語の発話戦略の使用、母語とも目標言語とも異なる発話戦略など、様々な中間言語が使われ、接触場面での中間言語は一律ではないことがわかった。

しかし、本稿は日中韓の接触場面での依頼行動に表れる中間言語の全体的な談話構造をみることにとどまった。今後は、依頼者と被依頼者のあいだで行われる発話のやりとりをもっと詳しく分析して、韓国語、中国語、日本語の学習者の中間言語の実体を明らかにする研究を進めていきたい。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terlanguage of Request Behavior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n analysis of interactions at the start of in the department

Kim, Jong-Wan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s of interlanguage that emerge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request behaviors in a contact situation by analyzing interview materials that recorded the start of conversa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a university.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in brief conversation situations in which students entered the professor's lab, greeted one another, and introduced themselves, conversation strategies adopted by the learner and native speaker took on various forms. interlanguage in the contact situation showed non-uniform and complex aspects, ranging from conversation strategies that retained the influence of the mother tongue to conversation strategies of the target language and conversation strategies that were different from both the mother tongue and target language.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 that it failed to go beyond just reporting the overall discourse structure of the interlanguage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learners' request behaviors in a contact situation.

Recognizing these limitations, I will continue an in-depth analysis of conversations between requesters and requested persons to reveal the interlanguage status of learners of three languages: Korean, Chinese, and Japanese.